

광주시 어리숙 행정...배수지 확장공사 이유 있었다

아스콘만 걷어내도 도로 밑 암반 드러나는데 확인 않고 강행 공사 중단 반복되며 봉선동 교통지옥...애꿎은 시민들만 피해 공법 변경 등 추가예산 투입 불가피...강도 높은 감사 나서야

광주시의 시민배려 없는 막무가내식 봉선 배수지 공사로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2018년 10월 19일자 6면)과 관련, 광주시가 도로에 깔린 아스콘만 걷어내도 발견할 수 있는 도로 밑 암반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면서 봉선동 주민들은 출퇴근길 교통지옥을 겪고 있으며, 암반 제거 등을 위해 막대한 시민혈세가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보여 '되레 공사 업체의 배반 불리게 되는 꼴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 강도 높은 감사와 투명한 예산집행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총 사업비 455억원을 들여 남구 봉선동과 방림동 일대에서 '봉선배수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11월 말을 목표로 봉선동과 방림동 구간(남구 용대로-오방로)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남구 봉선동 동아여자고등학교 앞 도로-대남대로까지 이어지는 900m 구간에서 높이 3m 이상의 암반층을 발견했다.

광주시는 공사에 앞서 지난 2016년 구간 1km마다 시추를 하는 등 지하의 암반 여부 등을 확인했지만 그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암반이 발견된 등

아리고-대남대로(900m) 구간 등도 암반 검사를 했지만, 시추구간에서 암반층이 살짝 벗어나는 바람에 암반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공사착공 이후 공법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추가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 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암반이 갑자기 드러나면서 상부 보고 등 행정절차를 밟느라 공사가 중단되는 일도 반복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광주시 공무원의 치밀하지 못한 행정 탓에 공사기간이 늘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공사해야 할 구간내에 암반이 갑자기 발견되면서 암반 제거 공법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여고 앞-무등 1차 앞 교차로 공사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 한 뒤 올해 안으로 인근 주

민과 주변 학교 등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암반 제거 공법을 확정, 내년께부터 추가 공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법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투입으로 공사 업체의 이익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광주시의 공사편의 주의 때문에 봉선동 일대 9만여명의 주민은 출퇴근길 도로 막힘, 소음과 분진, 진동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구간과 일정 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광주시의 불친절한 행정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암반을 제거해야 할 공사구간 인근에 학교 등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는 박영훈(64·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공사 소음과 진동이 너무 심해 못살겠다"면서 "노후 아파트와 학교 등도 많은데, 암반 제거 공사로 자칫 건물 안전 등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까 걱정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공사장 주변 카페 등 상인들 사이에선 배수지 공사 이후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이 크게 줄어드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광주시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사업체 관계자는 "도로에서 암반 등 지장물이 나올 때마다 광주시에 보고한 뒤 승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 공사기간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수도정비 담당자는 "일단 무등1차 앞 교차로 공사만 끝나도 출퇴근 시간 공사장 일대의 교통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사 도중 발견된 암반 제거와 관련해서 어떤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동성동본 혼인신고 못했어도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인정

동성동본금혼제 때문에 제대로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 지급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A(여·64)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975년경 B씨와 결혼했으나, 당시 동성동본 간 혼인을 금하는 가족법 규정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친정아버지와 상의 끝에 1977년 9월 다른 사람의 딸로 호적에 이름을 올린 뒤 1980년 8월에야 남편 B씨와 겨우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후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 폐지되면서 A씨는 2011년 10월 남편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 앞서 남편과 혼인신고를 할 때 사용했던 호적은 2010년 12월 사망신고를 접수했다.

남편 B씨는 1987년부터 2008년까지 21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해오다가 지난해 8월 사망했다.

A씨는 공단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남편 B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두 사람의 혼인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했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한 부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했으며, 자녀들을 상대로 유전자 검사 등을 한 결과 친자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첫 성소수자 '퀴어축제' 큰 충돌 없어

일부 종교단체 항의 속 경찰 차단막 설치하고 예방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린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문화축제'가 일부 종교단체 등의 항의에도 큰 충돌없이 마무리됐다.

21일 지역시민사회단체 '혐오문화대응 네트워크'가 주관한 '제1회 광주퀴어문화축제'가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광주, 무지개로 발광하다'를 슬로건으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펼쳐졌다.

경찰 추산 800여명이 참가한 이날 축제에는 '버자이너비토리', '무·대과 퀴어마법소녀연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등 성소수자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전남여성단체협의회, 광주여성민우회 등 40여개 단체가 부스를 마련했다.

축제장은 충돌을 우려해 축제 반대단체 등은 들어올 수 없도록 통제됐다.

경찰은 축제장 주위로 높이 1.5m 철제 차단막을 설치하고 차단막을 따라 경비인력을 2중으로 배치하는 등 충돌 없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치안행정에 나섰다.

축제장 내무도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활기찬 모습이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배지, 스카프, 깃발 등을 갖추고 각 부스를 돌아다니며 축제를 즐겼다.

여성 복장을 착용하고 화장을 진하게 한 남성부터 짧은 머리의 남성 복장을 한 여성, 손을 잡고 다정하게 다니는 동성커플 등이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며, 자신들의 의견을 광주시민에게 알렸다.

애초 우려했던 축제 참가자의 과도한 노출과 성인용품 진열·판매 등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축제에 참가한 박모(18·순천시)양은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축제 소식을 듣고 친구 4명과 왔다"며 "친구들과 퀴어축제를 후원하기 위해 배지와 스카프를 샀다"고 말했다.

반면, 축제장 외부에서는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5·18민주광장 팬티축제 열망이냐'라고 써진 손팻말을 든 일부 종교단체 회원들은 축제장 주위에서 행사를 취소하라고 항의하는 하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번 행사를 공식적으로 반대한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전남기독교총연합회 등 7개 단체는 이날 오전 7시 5·18민주광장에서 '퀴어집회 반대를 위한 기도회'를 연 데 이어 오후 3시부터는 금남로 4가-5가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국가인권정책(NAP) 독소조항 철폐 및 퀴어집회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퀴어축제 행사의 하나로 진행된 '무지개 퍼레이드'는 반대측 사람들이 도로에 늘거나 차량을 막아서는 등 한때 충돌이 있었지만 크게 다친 사람없이 진행됐다. 축제 조직위원회는 "첫번째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른 만큼 매년 퀴어축제를 열 계획"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거두고 다양성을 인정해줄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21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열린 광주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도박 시비 끝 살해·시신 유기 50대 징역 15년 선고

기원에서 도박을 하다 시비가 붙은 남성을 살해하고 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모(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후 시신을 트

렁크로 옮겨 유기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훔쳤다. 유족도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으로 괴로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는 해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9시께 광주 광산구 한 기원에서 A(68)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기원에서 카드 도박을 하다가 A씨와 시비가 붙었고, 손님들이 떠나고 단 둘만 남은 상황에서 범행했다. 노씨는 숨진 A씨를 승용차로 옮겨 영산강변에 유기했다.

노씨는 범행 이틀 만인 8월 2일 오후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A씨 시신을 찾으면서 긴급 체포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원룸 침입해 여성 속옷만 '슬쩍'

원룸에 침입해 속옷만 훔쳐 달아난 20대 회사원이 경찰서행.

○2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회사원이 이모(25)씨는 지난달 13일 밤 9시 56분께 광주 광산구 한 원룸 건물 외벽의 가스 배관을 붙잡고 올라가 A(여·23)씨가 사는 원룸에 침입한 뒤 방안 서랍장에서 팬티 1장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

○A씨로부터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현장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사는 이씨를 검거했는데, 이씨는 경찰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훔치려고 집에 침입했는데, 마땅히 훔칠 게 없어 속옷만 가져왔으며 나중에 버렸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 · 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